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이 2017년 발생한 EQUIFAX의 데이터 유출에 대해 1,920만 달러 합의 발표**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과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Equifax 및 자회사 두 곳에 벌금 부과***

***DFS 조사에 따르면 신용 평가 기관의 정보 보안 관행이 적절하지 않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유출 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Equifax는 배상금으로 최대 4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뉴욕 소비자에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5년 동안 무료로 연간 신용 보고서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검찰총장은 오늘 850만 명의 뉴욕 주민을 비롯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민감한 금융 및 개인 정보를 노출한 2017년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 Equifax Inc.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본 합의는 금융서비스국과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당 신용 평가 기관과 그 자회사들인 Equifax Information Services LLC 및 Equifax Consumer Services LLC를 조사한 것에서 비롯된다. 합의에 따라, 이들 회사는 DFS에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고, 뉴욕을 비롯한 여러 주의 검찰총장실에 1억 7,5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한 일환으로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92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Equifax는 소비자 배상 기금에 최대 4억 2,500만 달러의 지급을 약속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소비자의 금융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데이터 유출과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대응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이들 기관에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노출에 취약한 채로 놔둔다면 책임지게 될 것과 향후 뉴욕 주민들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이들 기관을 계속해서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Letitia James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Equifax는 개인정보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사람보다 탐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회사의 무능, 과실 및 느슨한 보안 표준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해당 회사는 옳은 일을 할 때이며 수백만 명의 데이터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던 모든 미국인에게 향후 신원 도용과 싸우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 감독관인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된 합의는 Equifax가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주고 보호를 제공합니다. DFS는 뉴욕 주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제 신용 평가 기관은 DFS의 면허를 취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의 획기적인 사이버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벌금 외에도 Equifax는 뉴욕 소비자들에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와 무료 연간 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유출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데이터 유출에 영향을 받은 뉴욕 소비자는 최소 4년 동안 주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회사들인 Equifax, Experian 및 Transunion의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12개월마다 Equifax가 제공하는 무료 신용 보고서를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해당 데이터 유출로 인한 특정 손실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에게 상환 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Equifax를 상대로 제기되어 이미 합의에 도달한 다지구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및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대상으로 하여 이룬 합의와 연계되어 실행된다. Equifax는 CFPB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DFS는 해당 유출이 있기 전과 유출 당시 이 회사의 보안 관행뿐만 아니라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직후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과 소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조사했고, 이들 회사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및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Law) § 408을 위반한 관행에 관여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DFS 조사에 따르면, Equifax의 2017년 데이터 유출 사건은 뉴욕 소비자들의 성명, 사회보장 번호, 생년월일, 주소 및 일부 소비자의 경우 신용 카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와 개인 식별 정보가 담긴 소송 문서를 비롯해 이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켜 소비자와 기업에 재정적 손상을 포함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을 초래했다.

DFS는 또한 2017년 9월 7일 Equifax, Inc.와 두 자회사가 데이터 유출 사실을 발표한 후 Equifax가 실수로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웹사이트로 소비자를 안내하는 등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 공격자가 소비자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점과 소비자가 해당 유출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데이터 유출 웹사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해당 회사들의 보안 관행에 대한 DFS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들 회사는 정보 보안 관행이 부적절했고,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파일에 있는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 포털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취약성을 처음에 탐지하지 못했다.
- 여기서 취약성이란, 이들 회사가 분쟁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오픈 소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인 Apache Struts와 관련된 취약성이다.
- 이 회사의 취약성 평가 팀(Vulnerability Assessment Team)은 취약한 버전의 Struts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완전히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련 기간 동안 Equifax는 개선해야 할 영역들을 식별하는 정보 보완 프로그램에 대해 내외부 검토를 수행했고 자체 정책에서 요구하는 일부 보안 조치를 적시에 구현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개인 식별 정보를 저장하여 신원 도용, 데이터 오용 및 사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소비자의 특정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자체 정책을 위반하여 특정 유입 및 유출 트래픽을 해독하지 못했다.

전체 동의명령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건은 DFS 부변호사들인 Serwat Farooq와 Laura Sarli가 민사 조사 부서(Civil Investigations Unit)의 부감독관인 Christopher B. Mulvihill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부(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Enforcement Division)의 집행 부감독관(Executive Assistant Superintendent)인 Katherine A. Lemire의 감독하에서, 은행부(Banking Division)의 집행 부감독관인 Shirin Emami의 감독하에 있는 라이선스 금융 서비스(Licensed Financial Services)의 부감독관인 Wendy Henry와 함께 처리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